

제주 성과 기반 전국서 ‘그린수소’ 실증… 탈탄소 가속

기후부-제주도, 오는 16일까지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 공동 개최
9개국 106개 기관 대거 참여

제주에 3.3MW급 수전해 단지 성과
하루 약 200kg 청정수소 생산

정부가 제주에서 축적한 그린수소 생산 및 운영 실증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 주요 거점에 50~100MW급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청정수소 생태계를 대대적으로 확장해 향후 다가올 탈탄소 사회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부터 16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2026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을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린수소 글로벌 선도연구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기후경제수소 제주, 글로벌 에너지 전환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다’를 주제로 열린다.

행사에는 국제에너지기구(IEA),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를 비롯해 독일, 덴마크, 태국 등 주요국 대사관과 국내외



제주시 구좌읍 행원 3.3MW 수전해 실증단지 전경

/기후부

기업, 대학 등 9개국 106개 기관이 대거 참여한다. 참가자들은 인공지능(AI) 기반의 재생에너지 혁신과 그린수소 국제협력을 핵심 축으로 삼아 에너지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주요 세션으로는 ▲재생에너지 시대의 전력시장 혁신 및 실행전략 ▲재생에너지 기반 그린수소 생산 및 시스템 통합 ▲생산-저장-수송-활용-안전에 관한 전주기 기술혁신 ▲청정수소 수요시장 확대와 지역 기반 실증사례 등이 마련된다. 아울러 카탈루냐 수소 생태계 국제협력 세션, EU-IURC 수소도시 협력 해커톤, 청소년·청

년 대상 그린수소 미래세대 아카데미 등 다채로운 학술 행사와 전시회, 현장 투어도 진행된다.

그간 기후부와 제주도는 청정수소 생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단계적 실증 사업을 지속해 왔다. 2017년 상명 250kW급 수전해 실증(2017~2021년)을 시작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222억원(국비 135억원, 도비 17억원, 민간 70억원)을 투입해 제주시 구좌읍 행원풍력단지 내에 3.3MW급 수전해 단지를 성공적으로 구축했다.

행원 단지는 알칼라인(ALK, 1MW 2기)

과 고분자전해질막(PEM, 1.3MW) 방식의 수전해 시스템과 2MWh급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갖춘 국내 대표 청정수소 생산기지다. 2024년 9월 본격 가동 이후 하루 약 200kg(최대 600kg)의 청정수소를 생산해 도내 수소버스 17대와 수소 승용차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는 재생에너지 기반 그린수소 생태계 구축을 실제로 입증한 독보적인 실증 사례로 평가받는다.

정부는 이같은 행원 단지의 실증 경험을 발판 삼아 재생에너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50~100MW급 대규모 그린수소 생

산 실증사업으로 규모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포럼 마지막 날인 16일에는 행원 실증단지 현장에서 기후부와 수소 전문기업 및 연구자들이 참석하는 ‘수전해 기술 성과 공유회’를 열고, 그간의 구축·운영 경험을 공유하며 대규모 실증사업의 발전 방향을 집중 논의한다.

박덕열 기후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청정수소는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산업의 탄소저감을 위한 기초원료이자 재생에너지를 보완하는 청정에너지원으로, 향후 도래할 탈탄소 사회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요소”라며 “제주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이를 수소차 등에 연계·활용하며 청정수소 생태계 구현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수전해 실증을 추진하는 등 재생에너지와 수소를 연계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제주 가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 에너지 전환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는 선구자로서의 역할을 지속해 나가기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해진공, 폴란드서 유럽 물류 인프라 확보 박차

글로벌 물류·공급망 투자지원 설명회
브로츠와프 캠퍼스 II 준공식 참여
삼성SRA·캡스톤운용 등도 가세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국내 기업의 해외 물류거점 확보를 위해 유럽연합(EU)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유럽 내 물류 인프라 확보를 위한 금융지원 및 공동투자 기회를 최대한 늘려 간다는 계획이다.

해진공은 이와 관련해, 지난 8일(현지시간) 폴란드 자메크토파치호텔에서 물류·항만·공급망 분야 기업과 투자자,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글로벌 물류·공급망 투자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 또 국내기업들의 입주가 예정된 현지 물류센터(‘브로츠와프 캠퍼스 II’) 준공식에도 참석했다. 이는 우리 기업의 해외사업 확대에 발



안병길 해양진흥공사 사장(가운데)이 7일(현지시간) 폴란드 브로츠와프에서 열린 물류센터 준공식에 참석했다.

/해진공

맞춘 행보다. 현지 물류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이 안정적으로 해외 물류거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및 공동투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폴란드는 최근 국내 제조·물류기업의 진출이 활발하고 유럽 물류의 핵심 거점으로 주목

받는 시장이다.

설명회에서는 해진공의 주요 사업과 지원 제도를 비롯해 글로벌 물류·공급망 투자펀드 운용 현황과 유럽 물류 부동산 시장 전망, 폴란드 주요 권역별 물류 부동산 투자·개발 사례 등이 소개됐다.

삼성SRA자산운용과 캡스톤자산운용은 각사가 운용 중인 글로벌 물류·공급망 투자펀드와 주요 투자자산을 소개했다.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서비스기업인 쿠시먼 앤드 웨이크필드는 유럽 물류 부동산 시장의 최근 동향 및 전망 등을 발표했다. 이어 GS건설은 폴란드 주요 권역별 부동산 투자·개발 사례를 소개하며 현지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해진공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유럽 현지의 물류 시장과 투자 환경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고, 사업 특성과 수요에 적합한 물류거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공유했다. 또 참석 기업 및 투자자들과 국내 기업의 유럽 진출과 연계 가능한 금융 지원, 공동 투자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안병길 해진공 사장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주요 물류거점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해외 진출과 공급망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유럽을 비롯한 주요 지역에서 우량 물류 자산을 적극 발굴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물류 인프라 진출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해진공은 7일 폴란드 브로츠와프에서 열린 ‘캠퍼스(Campus) II’ 준공식에도 참석했다. 캠퍼스 II는 해진공이 조성한 글로벌 물류·공급망 투자펀드를 통해 삼성SRA자산운용이 투자를 추진 중인 자산이다. 국내 다수의 기업이 임차하고 있는 현지 물류센터다.

공사는 매년 주요 해외 지역에서 글로벌 물류·공급망 투자지원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베트남을 찾은 데 이어 올해 6월 미국, 9월에는 폴란드에서 설명회를 가졌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한기대-국방전직교육원’ 병합 합의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 일환
전역 예정 군인에 보다 효과적인
직업훈련·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고용노동부 산하의 한국기술교육대와 국방부 산하의 국방전직교육원이 합체된다. 이는 정부가 이달 초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의 일환이다. 국방전직교육원의 기능이 한기대로 흡수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역예정 군인을 대상으로, 보다 효과적인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둔 통합 방안이다.

국책대인 한국기술교육대는 실전공학자 양성을 목표로 하는 4년제 대학으로 고용서비스정책학과, 고용직업능력개발센터를 운영하는 등 고용서비스·정책개발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이다. 또 민간 훈련

기관 및 훈련과정에 대한 심사평가, 온라인 평생직업능력개발 플랫폼인 ‘STEP’ 운영, 직업훈련 교사·강사 양성 등 직업훈련에 대한 전문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국방전직교육원은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전직 교육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매년 약 2만 9000명의 장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직업군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복무기간별 맞춤형 교육 및 군 경력과 연계한 취업 컨설팅 등의 프로그램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소규모 교육기관으로서 교육과정 종류가 제한적이고 단기과정(3~4일) 위주로 운영되는 등 일부 한계도 있었다.

이번 통합으로, 고용노동부·한기대가 보유한 온·오프라인 직업훈련과 연계한 종합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전

역예정 군인들은 그간 국방전직교육원이 제공해 온 기본교육(3~4일 단기과정) 외에도 한기대가 보유한 온라인 직업훈련 콘텐츠(STEP),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약 3만 개의 전문 직업훈련 과정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취업지원 서비스도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역예정군인들이 교육·훈련을 전후해 고용노동부 고용24(워크넷)를 통한 구인구직 서비스, 전국 102개 고용복지+센터를 통한 전문 상담사의 진로·취업 상담 등에 대한 추가적인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양 부처는 9월 노동부와 국방부, 한기대, 국방전직교육원 주요 인사로 구성된 통합추진단을 발족할 예정이다. 통합 후 기관의 전문성 확보 및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법령, 예산, 조직, 직원 복리후생 등 구체적인 사안별로 협의를 진행한다. 연내 세부 통합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광양항, ‘친환경·스마트 물류’ 향만 도약

여수광양항만공사-민간기업 ‘맞손’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민간 기업과의 공조를 통해 항만배후단지의 고부가가치 실현 및 국가탄소중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공사는 최근 BS한양, 광양그린에너지와 ‘여수광양항 중심의 친환경 에너지 및 스마트 물류허브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는 오는 10월 본격 상업운전을 앞둔 광양 황금알반산업단지 바이오매스 발전소 가동에 발맞춘 협약이다.

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친환경 바이오에너지 인프라 조성 및 행정·제도적 지원 및 배후단지 내 글로벌 제조·물류기업 유치 촉진 ▲안정적인 친환경 연료 수입을 통한 연간 약 4만 50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 신규 물동량 창출 및 선진 이송 물류망 운영 등 다각적인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광양그린에너지가 추진하는 황금산단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사업비 약 6800억원이 투입된 220메가와트(MW) 규모의 대형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다.

이 중 해외에서 수입되는 우드펠릿(청정 목질계 바이오 연료)이 광양항 컨테이너 터미널을 통해 유입됨에 따라 광양항에는 연간 약 4만 5000 TEU(월평균 약 3700TEU)에 달하는 견고한 정기 물동량이 새로 창출될 전망이다.

최관호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은 “이번 협약은 광양항이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와 스마트 물류가 융합된 복합 거점항만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